

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

본문:창세기 41:1-16

유튜브: <https://www.youtube.com/live/cfbVXakxzkw?si=5xklHnmtHliERjsB> (주소 클릭-> 열기 클릭)

[새벽 말씀 묵상]

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빛을 내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.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, '나'를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.

오늘 본문의 요셉도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무대에 섰습니다. 지하 감옥에서의 억울한 시간을 끝내고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. 바로 왕은 “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더라”며 요셉의 능력을 주목하고 부추겼습니다. 만약 보통 사람 같았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스스로 빛을 내고자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요셉은 온 제국의 시선이 집중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철저히 자신을 지워버립니다. “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.”

요셉이 이토록 자신을 빼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었던 비밀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혔던 '지하 감옥에서의 만 2년'에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 캄캄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요셉 내면의 인간적인 자량과 내 힘으로 풀어나가려던 자아를 완전히 빼내셨습니다. 인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광야 학교에서, 요셉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.

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빛나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. 광야 40년을 통해 힘을 뺀 모세를 붙잡으셨듯,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,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비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.

오늘 하루, 내 인생의 무대에서 '나'를 철저히 빼고 그 빈자리에 오직 '하나님'만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.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빛을 내는 낮아진 그릇이 될 때,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고 높여주셔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.

[말씀 관찰]

1.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채 흘러간 시간은 얼마 동안이며, 그 후에 바로 왕은 어디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까? (창 41:1)
2.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능력을 칭찬하며 부추길 때, 요셉은 누가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까? (창 41:16)

[삶의 적용]

1. 결정적인 순간이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무대에서, 내가 하나님 대신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내 안의 '인간적인 자량'이나 '나의 능력'은 무엇입니까?
2. 오늘 내가 화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철저히 '나는 빼고 하나님만 채워야 할 삶의 영역'은 어디이며, 이를 위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까?

[오늘의 기도]

내 힘과 교만을 철저히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,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참되게 빛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.